

영암·무안·신안 '빅뱅' 예고

현역 이윤석·주영순, 박준영·서삼석 전 지자체장 대결 선거구 대진표 확정...고흥·보성·장흥·강진 현역 3파전

선거구 확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현역 국회의원과 전직 도지사 등 유력인사들의 출마가 잇따르면서 고흥·보성·장흥·강진, 영암·무안·신안 지역구가 광주·전남 지역 최대 관심 선거구로 떠오르고 있다.

그동안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아 예비후보 등록과 출마 선언을 미루던 현역 의원 등 유력 후보들이 지난 2일 선거구 확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변화된 선거구에 맞춰 잇따라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있다.

고흥·보성·장흥·강진 지역구의 경우 김승남·신문식·황주홍 의원 등 현역 의원 3명이 뛰어들어 경쟁을 하게 됐다. 애초 고흥·보성의 현역 의원인 김승남 의원은 지난 2월19일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선거구 확정에 따른 경쟁자가 누가 될지 기다려왔다. 그런데 장흥군과 강진군이 선거구에

포함돼 거대 선거구가 되면서 장흥·강진·영암지역의 현역이었던 황주홍 의원이 지난 2일 장흥군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갔다. 이어 6일엔 장흥군민회에서 출마 기자회견까지 가졌다. 또 고흥이 고흥인 비례대표 신문식 의원도 지난 2일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곧바로 전남도의회 기자실에 들러 출마 의사를 밝힌 데 이어 지난 4일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여기에 이 지역구에는 정치 평론가로 방송에서 꾸준히 활동해와 인지도가 높은 김철근 예비후보까지 경쟁에 가세, 그야말로 '강자들의 각축장'이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신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예비후보들은 모두 국민의당 소속이어서 당내 경선전도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영암·무안·신안도 '빅이벤트' 선거구로 꼽힌다. 새누리당 비례대표인 주영순 의원과 더민주 소속인 서삼석 전 무안군수가 일찌감치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후 선거전에 뛰어든 가운데 선거구 확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지난 3일엔 더민주 이윤석 의원이, 4일엔 민주당 소속인 박준영 전 전남지사가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선거전에 가세했다.

무안·신안 선거구를 가정하고 현역 국회의원과 2명씩 전직 군수 간 대결 구도였는데 선거구 확정에서 영암군이 포함된 새 선거구가 만들어지면서 영암 출신인 박 전 지사까지 가세하며 치열한 생존경쟁을 벌이게 됐다.

주 의원은 신안 출신, 서 전 군수와 이 의원은 무안 출신이어서 지역간 대결도 흥밋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또 이 의원과 서 전 군수는 더민주 소속으로 경선이라는 1차 대결을 통과해야 하는 상황이다.

/*박지경기자jkpark@kwangju.co.kr



공관위에 인사하는 김무성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선거구변경지역 1일차 공천신청자 면담에서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 등 공관위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남뉴스

“국민의당 발상지는 광주·호남...지향은 전국 정당”

전윤철 공관위원장 광주 면담



또 “국회의원은 국민을 섬기기 위한 정치머슴에 불과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어느 거대정당은 나라를 걱정하는 지식인들 입에서 ‘월빙적 놀이터’라는 부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또다 큰 거대정당은 ‘정치 자영업자 모임’이라는 부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며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을 모두 비판했다.

그러면서 “개혁과 합리와 상식을 기치로 내걸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다는 각오로 당당한 정당이 국민의당”이라며 “국민

의당은 양 당에 대한 냉정한 평가에서 앞장서서 반사이익을 얻고자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유권자가 거대정당에 대해 느끼는 실망과 환멸을 우리 쪽으로 유리하게 활용해야겠다는 알뜰한 정치공학자 발상으로 총선에 나서선 안되겠다”며 “그렇다면 싹을 틔우기 전에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고 사라질 우려도 없지 않다”고 경고했다.

전 위원장은 이어 “광주발(發) 정치개혁을 전국적 정치로 승화시켜야하며, 무엇보다 광주 정치인들이 국민의당 승리를 이끌어 줄 것”을 당부했다.

/*최연필기자 cki@kwangju.co.kr

체육관련시설 2층 상가매매

(에어로빅, 헬스, 당구장, 체육관, 기타) 넓은주차장 용봉, 문흥지구 중심상가

- 전용 289㎡ (락볼링장 옆 점포2칸)
- 매 7억5천만원(근저당 5억원) 실투자 2억5천만원

락볼링장 매매

전남대 부근 최신시설 락볼링장 현 성업중 직영하실분 환영

- 볼링장 16레인, 시설비품 일체포함
- 매 26억5천만원 (근저당 20억) 실투자 6억5천만원

문의 010-3647-4747 (급매 조정가)

복성중 28회 친구 찾기

- 상균이, 호승이, 재준이와 28회 졸업생 690명을 찾습니다.
- 복성28회를 아시면 신고해주세요 (매월 28일 정례모임중)

김행권(복성 28회 살림꾼) 010-3379-2209

4·13 총선 현장

김동철 사무소 개소... “정권교체 하겠다”



국민의당 김동철(광주 광산 갑) 의원은 5일 4·13 총선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었다. 이날 개소식에 박지원·박준선 의원 등 당직자와 지지자 1000명이 참석했다.

김동철 의원은 이날 “계파 패권주의와 진영논리로 국민에게 외면 받은 더불어민주당으로는 정권교체에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면서 “광주에서부터 국민의당의 압도적 승리로 정권교체의 교두보를 기필코 만들어 내겠다”고 역설했다.

권은희 “삼성기전 협력업체보호 당론 채택”



국민의당 권은희(광산 을) 의원은 6일 삼정전자 광주사업장 베트남 이전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업체보호법 제정과 관련, 중앙당 차원에서 당론으로 채택해 적극 대응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삼정전자 광주사업장 베트남 이전에 따른 후폭풍이 광산구에 쓰나미처럼 오고 있는 징후가 포착되고 있어 두려울 지경”이라고 진단하면서 “근로자들이 실업을 염려해 소비가 얼어붙으면서 중심상가부터 빠져나가는 소리가 들린다”고 말했다.

박혜자 사무소 개소식서 ‘토크 콘서트’



더불어민주당 박혜자(서구 갑) 의원은 6일 4·13 총선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한 뒤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갔다. 이날 개소식엔 임재정 전 국회의장과 김원기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이용섭 비대위원, 광주지역 예비후보 및 지역주민들이 참석했다. 박 의원은 “소통하는 국회의원, 일 잘하는 국회의원의 이미지를 함께 심어줬다”면서 “이번 총선 승리를 통해 정권교체를 위한 밑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기석 사무소 개소... “사회 양극화 해소”



국민의당 송기석 광주 서구 갑 예비후보는 5일 4·13 총선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었다. 이날 개소식엔 박준선 최고위원과 박지원 의원을 비롯해 조정관 시장 위원장과 지역 주민 등 1000여명이 참석했다.

송 후보는 이날 “정의로운 사회, 공정한 성장, 사회양극화 해소를 외치는 국민의당을 선택했다”면서 “이 길이 제가 가는 길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남재 사무소 개소... “혁신의 길 나설 것”



더불어민주당 이남재 광주 북구를 예비후보는 6일 4·13 총선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더민주의 총선승리와 정권교체를 위한 혁신의 길에 가장 먼저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엔 이용섭 당 정책공약단장과 이개호 의원, 유근기 공성군수 등 지지자 1000명이 참석했다. 이날 개인적인 이유로 개소식에 불참한 손학규 전 고문은 축구를 통해 “민심을 살피고 어려운 서민의 삶을 챙기는 민생정치의 중요성을 잊지 말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김승남 사무소 개소... “호남 정치 복원”



국민의당 김승남(강진·장흥·보성·고흥) 의원은 5일 4·13 총선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성황리에 마쳤다. 이날 개소식엔 지지자 3000명이 참석했다. 안철수 공동대표와 박지원·박준선·유상엽 의원은 축하 연설을 보냈다. 김승남 의원은 “기득권 양당체제로는 안 된다. 호남정치 복원을 통해 제3의 정치혁명을 이루겠다”며 “진보와 중도개혁세력까지 폭넓게 소통하는 통합적 리더십으로 총선승리와 정권교체를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경환 사무소 개소... 총선 승리 출정식



국민의당 최경환 광주 북구를 예비후보는 5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한 뒤 경선·총선 승리를 위한 출정식을 가졌다. 안철수·전정배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이날 영상메시지를 통해 “최경환 후보가 앞으로 광주와 북구 발전, 정권교체를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최 후보는 “사람을 바꾸고 야당을 교체해 총선승리를 통해 정권교체를 이루는데 힘을 모으자”고 호소했다.

이병훈 “에너지빈곤층 지원 확대 시급”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광주 동구 예비후보는 6일 동구와 남구 등 구도심에 사는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우리나라 노령 인구(65세 이상)의 빈곤률은 50%에 육박하며 소득은 1인 가구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많다”며 “소득 부족으로 혹서기와 혹한기에 냉난방을 제대로 하지 못해 건강을 해치는 등 에너지 빈곤 문제가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광주 동구청장 재선거 현장

임택 “쇠퇴한 공간에 문화 입혀 도시 재생”



더불어민주당 임택 광주 동구청장 예비후보는 6일 “문화를 입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 동구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주요 공약 두 번째로 ‘문화를 입은 도시재생’을 내놓고 구도심을 ‘아파트숲’으로 만드는 획일적 도시재생이 아닌 쇠락한 공간에 문화 활력을 불어넣어 자생력을 키우는 공동체 중심의 도시재생을 추진하겠다”라고 약속했다. 그는 “공간의 재생과 역사·문화의 접목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창조적인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안재경 “골목상권 보호법 조례 제정해야”



국민의당 안재경 광주 동구청장 예비후보는 6일 지역내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을 보호하는 ‘동구 상권 살리기 방안-경쟁력 지원안’을 제시했다. 그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기존의 금융지원에서 벗어나 현실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필요로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한 방안으로 ▲골목상권에 자율상권구역 지정 ▲과도한 임대료 상승 억제 등의 ‘자율상권법’ 조례 제정 등을 제시했다.

/*이충행기자 golee@kwangju.co.kr

www.솔향기맑은터.com

솔향기맑은터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171(풍림죽림길 86)

대표전화 (061)336-0770

NAVER 솔향기맑은터 검색

솔향기정식 & 돼지갈비 전문점 예약

www.솔향기맑은터.com

061)336-3939

참숯가마

24시간 OPEN!!

▶ 다량의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불뼈는날 화, 목, 토, 일

▶ 불뼈는 날이 아니어도 화로방에서 원적외선 샤워

▶ 사전예약시 컨퍼런스룸, 족구장, 12인승, 25인승 무료이용

▶ 멸균작용으로 시 및 바이러스 퇴치에 도움을 주는 목초액

▶ 염가공급 1톤 30만원 (양돈, 양계, 한우, 하우스농가대상)

맛의향연

● 단체모임을 위한 8인실, 16인실, 32인실, 56인실 구비

● 행복한 모임을 위한 돼지갈비전문점으로 바뀝니다.

돼지갈비, 매콤갈비찜정식, 딱딱비정식, 솔향기정식

▶ 돼지갈비를 드시면 참숯가마 찜질방 50% 할인

▶ 주말 및 연말연시 모임은 사전예약으로 차질없게

사전예약시 ▶ 12인승, 25인승 차량 무료운행 / 컨퍼런스룸, 족구장 무료이용 가능